

설 연휴에도 승부는 계속된다

설 연휴 추위를 스포츠의 열기가 녹인다. 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설 연휴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과 설날장사씨름대회, 울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되는 프로농구, 프로배구 울스타전 등이 열려 스포츠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에서는 세계여자골프 랭킹 1위 신지애(23·미래에셋)가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여자오픈 출전을 시작으로 기지개를 켜고 휴식이 짧아 한국 선수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계속된다.

빙속 간판 이승훈 AG 첫 도입 매스스타트 출전

씨름 170kg 거구 윤정수, 이태현에 설날장사 도전

동계아시안게임은 지난달 30일 개막한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은 설 연휴 동안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다.

여자중독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빛 레이스를 시작한 한국은 연휴 첫날인 2일 쇼트트랙 경기에서 남녀 1000m와 계주에 출전한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이승훈(한국체대)이 매스스타트(단체 출발)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노린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4일 남녀 1500m에서 다시 금메달에 사냥에 나선다. 만형 이규혁(서울시청)의 종목 3연패 달성 여부가 관심사다.

또 2일과 4일 열리는 스키점프 개인전과 단체전, 3일 열리는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에서도 내심 '깜짝 금메달'이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메달 획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3일부터 남녀피겨 싱글에서 나서는 유망주 김민석(수리고)과 박민정(수리고), 김채화(간사이대)의 연기도 지켜볼 만 하다.

설날장사씨름대회= 1일 시작된 씨름대회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된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구제역 여파로 지난해 12월 개막예정이었다던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취소돼 아쉬워 했던 씨름팬들의 갈증을 달래준다.

2일 금강급에서는 임태혁(수원시청)이 다른 선수들의 집중 견제를 극복하고 최강자로 다시 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일 한라급 경기에서는 조준희와 김기태(이상 현대삼호중공업)의 각축전이 예상되며 대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백두급 경기가 대미를 장식한다.

돌아온 모래관의 황태자 이태현(구미시청)은 지난해

열린 4개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부상이 회복된 황규연(현대삼호중공업)과 170kg의 거구 윤정수(업)의 도전이

(현 대삼호중공업)만만치 않다. 이번 대회는 4일까지 KBS 1TV가 오후 2시에 생중계한다.

프로농구= 울스타전을 치르고 잠시 쉬었던 남자 프로농구가 3일 재개된다.

남자농구는 4라운드까지 마치고 이제 팀당 18경기씩을 남겨둔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산 KT의 선두 행진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2위 인천 전자랜드에 2.5경기 차로 앞선 KT는 4일 서울 SK, 6일 전주 KCC와 맞붙는다. KCC는 KT와 상대하기에 앞서 오는 4일에는 공동 3위에 올라 있는 원주 동부와의 홈 경기를 치러야 해 힘겨운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동부도 KCC에 이어 역시 3위 자리를 나눠 가진 서울 삼성(6일)과 잇달아 원정 경기를 갖게 돼 고비다.

여자농구는 4일 구리 KDB생명-안산 신한은행의 맞대결로 다시 레이스를 시작한다.

프로배구는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 6일 정오부터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마련된 특별코트에서 프로배구 울스타전이 열린다.

이번 울스타전은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배구팬이 아니더라도 쉽게 경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승훈)



취지로 처음으로 경기장을 떠나 이벤트 홀에서 펼쳐진다.

남자 울스타전은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가 편을 갈라 경기를 펼치고 여자부 울스타전은 1·4·5위팀과 2·3·6위팀의 스타들이 맞붙는다.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 4대 프로스포츠의 스타들이 스파이크 대결을 벌이는 이색 볼거리도 준비됐다. 프로야구의 선동열 전 삼성 감독과 은퇴한 거포 양준혁, 이순철 해설위원, 프로배구의 김상우, 김호철, 박희상 감독, 김세진, 신진식 배구 해설가, 프로농구에서 은퇴한 황태자 우지원과 람보슈터 문경은 SK 코치 등이 참가한다.

해의 경기= '지존' 신지애가 올 시즌 첫 출전 대회를 2월3일 호주 멜버른에서 나흘간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호주여자오픈으로 선택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간 유럽과 축구대표 선수들은 리그 경기를 준비한다.

휴식이 짧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청용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불턴이 2월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울버햄프턴과 홈 경기, 5일 자정 토트넘과 원정경기를 치를 예정이라 이청용의 출전 가능성도 있다.

프로축구 K-리그의 울산 현대는 홍콩 구장에 맞춰 열리는 2011 아시안챌린지컵에 참가해 2월3일 홍콩스타디움에서 헨진 테(중국)와 첫 경기를 치른다. 승리하면 결승전, 패하면 3-4위전을 6일 같은 장소에서 벌인다.

연습뉴스

아이스하키 "타도 일본"

한국 동계 AG 메달 도전...내일 日과 한판 승부

2011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노리는 남자 아이스하키팀에 3일 일본과 경기는 첫 관문이다.

역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단 한 번도 꺾지 못한 일본을 제압해야 풀리그 남은 경기에 승부를 걸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86년과 1990년 1, 2회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연달아 동메달을 따냈지만 이후 3개 대회 연속으로 4위에 머물렀다. 중국과 일본에 늘 뒤진데다 중앙아시아의 강호 카자흐스탄에 밀리면서 순위 경쟁에서 맥을 추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07년 창춘 대회 때 중국을 누르고 17년 만에 동메달을 땄었다. 상승세를 탄 대표팀은 내친김에 처음으로 아시아 2위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이 3일 일본을 잡으면 4일 카자흐스탄에 지더라도 6일 중국을 이기면 은메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일본과 경기 결과에 따

라 메달 색깔이 거의 정해지는 셈이다.

아직 일본에 비하면 객관적인 전력은 여전히 떨어진다. 일본은 대학팀만 50여 곳을 이룰 정도로 아이스하키 저변이 넓어 4개 팀을 운영하는 한국에 여러모로 앞선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수년 동안 아시아에서 몰라보게 올라간 위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1999년 강원 대회에서 일본에 1-12로 참패했던 한국은 2007년 창춘 대회에서는 0-3까지 격차를 좁혔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함께 치르는 아시안리그가 출범하면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다. 지난 시즌에는 안양 한라가 최초로 일본 팀을 몰라치고 리그 통합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달 31일 대만과 대회 첫 경기에서 22-0으로 골 세례에 성공하면서 시원하게 출발했다. 산뜻한 출발이 숙원인 일본 팀 격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습뉴스

토레스, 900억에 첼시행

EPL 사상 최고 이적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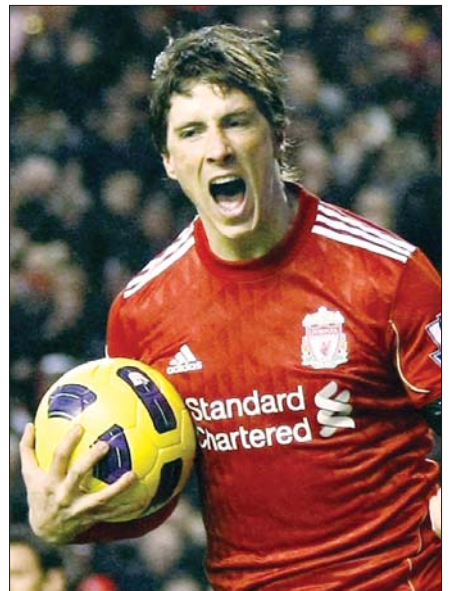
첼시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액인 900억 원의 이적료를 주고 리버풀에서 뛰던 스페인 국가대표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27)를 영입했다.

첼시는 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토레스와 계약서에 사인했다. 계약 기간은 5년6개월이다"고 밝혔다.

첼시는 이적료를 밝히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은 무려 5000만 파운드(약 8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토레스의 이적료는 한 시간 앞서 리버풀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장신 공격수 앤디 캐롤을 영입했다고 발표하면서 내기로 한 3500만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액이다.

그전까지는 브라질 축구스타 호비뉴(AC 밀란)가 2008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맨체스터 시티로 옮길 때의 3250만 파운드가 최고 이적료였다.

스페인 대표로 2008년 유럽선수권대회와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우승을 경험한 토레스는 2007년 스페인 아틀레



티코 마드리드를 떠나 리버풀에 동지를 둔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2경기를 뛰면서 65골을 넣는 등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총 142경기에 나와 81골을 터트렸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부진하던 차에 첼시가 구애를 해오자 이적이 성사됐다.

연습뉴스

美 축구팀, 이집트 원정 친선경기 없던일로

반정부 시위여파 취소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 여파로 미국과 이집트 간 축구대표팀 친선경기가 취소됐다.

1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불안한 현지 정세 때문에 결국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수입 골라트 미국축구연맹 회장은 "이집트와 겨룰 기회가 생겨 기대가 컸지만, 최근 상황 때문에 친선경기를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모든 관계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이집트는 19위, 미국은 18위다. 두 팀은 2009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어 미국이 3-0으로 이긴 바 있다.

연습뉴스

설 연휴 빅게임 일정

Table with 4 columns: 2일(수), 3일(목), 4일(금), 5일(토), 6일(일). Lists various sports events including basketball, football, and badminton.



홍스페이스 SPACE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공항간 대로변 400평)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주) 홍스페이스는 1990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틱,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업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